

1979년, 태풍의 전야
YH사건



1979년 8월 9일 새벽, YH 여성 노동자들은 회사 운영의 정상화와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마포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8월 11일 새벽 2시 이른바 '101호 작전'을 개시, 경찰 1천 명이 신민당사에 난입하여 평화롭게 농성 중이던 노동자 172명을 강제 연행하고 신민당 의원 및 취재기자들을 무차별 폭행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김경숙이 추락, 사망하고 1백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를 계기로 박정희 대통령과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극한의 대결을 벌이게 되고 'YH사건'은 부마항쟁에 이어 '10·26사태'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된다.

25년 뒤의 만남

YH무역이 있던 자리에는 현재 녹색병원이 들어서 있다. 2004년 9월 4일 토요일 오후, 녹색병원 7층 회의실 안으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하나 둘 들어오고 있다. 신민당사 점거 농성 중 경찰에 강제 연행되었던 이후로 YH노동조합원들이 25년 만에 갖는 첫 공식적인 만남이 있는 날이다. 눈가의 주름이 자연스러운 중년이 되었지만 푸르른 시절을 보낸 장소에서 옛 동료들과의 만남은 각별할 수밖에 없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얼굴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그들을 스무 살로 돌아가게 한다.

회의실 탁자에 둘러앉은 이들 중에 당시 노동조합 지부장이었던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의 모습이 보인다. 당시 사무장으로 활동했던 박태연(49, 부천여성노동자회 회장) 씨가 이번 만남을 주선했다.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했던 모든 노동자들이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경찰에 의해 강제로 고향으로 내려간 사람들도 얼마 동안은 관할 경찰



25년만에 만난 왕년의 투사들. 간헐적인 만남은 있었지만 신민당사에서의 강제 연행 후 갖는 첫 공식 모임이다.

서의 감시를 받았습니니다. 저와 같이 고향으로 가지 않은 사람들은 가명을 쓰지 않는 한 다른 공장에 취직하기는 힘들었습니다. YH무역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회사도 받아 주지 않았으니까요.”

조합원들은 청량리, 성북, 성동, 강남 등 7개 경찰서에 분산 수용되어 장시간 조사를 받는다. 조사를 마친 뒤 조합원들을 각 경찰 버스로 YH본사로 실어와 현관 입구에 마련된 퇴직금 지급소에서 월급과 퇴직금을 받아가라고 강요한다. 강제로 퇴직금을 수령한 조합원들은 기숙사에 들러 개인 소지품을 챙긴 뒤 경찰차에 실려 강제 귀향하게 된다.

YH노조 설립

1966년 1월 당시 뉴욕 한국 무역관 부관장이던 장용호는 왕십리의 한 콩나물 공장을 빌어 자금 100만 원, 종업원 10명으로 가발공장을 시작한다. 당시 가발 수출의 호경기와 정부의 수출정책에 힘입어 기적과 같은 성장을 이루고 불과 2년 만에 동대문구 면목동에 5층 건물을 지어 본 공장을 이전하고 인천에 제2 공장을 설립

한다. 장용호는 자신의 이름 영문 첫 글자를 따서 공장 이름을 YH라 짓는다.

1970년에는 수출 실적 100만 불, 종업원 4,000명으로 국내 최대의 가발 생산업체로 성장한다. 70년 9월 장 사장은 친척을 국내 사장으로 앉히고 자신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그는 미국에서 호텔과 백화점을 경영했고 이 과정에서 YH무역의 많은 자본이 해외로 유출된다. YH무역은 무리한 사세 확장과 자본 유출로 75년부터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작업 과정이 도급제로 전환되면서 노동자들은 감원과 감봉을 강요당한다.

동일방직, 원풍모방과 함께 섬유업계 3대 민주노조로 불리는 YH노조가 설립된 것은 75년 5월 24일이다. 79년 초, 제2차 오일쇼크가 터지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폐업공고를 낸다. YH노동자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뭉쳐 회사의 정상화를 요구한다.

노조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에 맞서 회사는 반복적인 휴업과 인원감축으로 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꾀한다. 회사는 휴업을 실시하고

작업량을 하청업자에게 주기 시작한다. 하청공장들은 소규모 영세기업이고 노조가 없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노동의 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77년 8월부터는 3일 또는 5일씩 반복해서 휴업을 실시한다.

“하청을 맡은 작은 회사들은 대개 YH무역의 말단 관리자들이 회사의 지원을 받아 세운 공장이었습니다. 경영자들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일거리를 빼돌리고 자주 휴업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회사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폐업공고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경영부실, 경영진의 외화 도피와 부정행위, 가발사업의 사양화 등으로 YH의 재무구조는 악화되었고, 마침내 79년 3월 30일 폐업공고를 한다. 노조는 긴급 대의원대회를 열고 폐업철회를 요구하며 4월 13일 긴급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이 총회에는 다른 민주노조의 간부와 기자와 여러 정치 인사들이 참석했지만 실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은행의 대표가 불참한다. 노조는 은행과 회사 측의 확실한 해결안이 나올 때까지 농성을 하기로 결의한다.

5월 24일 긴급 대의원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조 내부에서는 이후 싸움의 방향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내놓는다.

“첫째는 회사 정상화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것이 민주노조를 지키고 노동운동을 발전시키는 방법이라는 주장과 정상화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충분히 받고 다른 현장으로 들어가서 제2의 YH노조를 결성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녹색병원 한쪽 뜰에는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로 시작되는 작은 비가 세워져 있다. '원진레이온 직업 병 환자들의 고귀한 희생과 이 시대의 양심들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 낸 사랑의 결실, 녹색병원.' YH와 원진레이온 사건은 맥을 같이 한다.



"우리 YH 동지들은 누구하나 삐뚤어지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웠던 경험이 인생관을 바꿔 놓은 것 같아요." YH노조 사무장이었던 박태연 씨는 지금도 노동운동의 현장에 서 있다.

노조가 실시한 조사 결과 대부분의 조합원은 퇴직 이후 고향에 내려가겠다고 했고 노조운동의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회사로 가겠다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집행부는 YH노조를 통해 싸우는 것이 조합원들의 현실적 이익과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 결정한다. 노조의 투쟁 형태는 파업이나 작업거부가 아니라 일과 시간 이후의 농성이었다.

회사는 최종적으로 8월 6일 폐업공고를 한다. 노조 측은 대책회의를 열고 농성장소를 기숙사로 옮긴다. 집행부는 각 종교단체와 인권단체에 지원을 요청한다.

신민당사 농성

YH노조는 회사의 기숙사 폐쇄, 단전, 단수 등의 조치로 기숙사에서 농성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 조합 간부들은 제2의 농성장소로 국내외에 미칠 영향력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고려, 신민당사로 들어가기로 결정한다.

8월 9일 오전 5시 30분부터 YH노조 조합원들은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삼삼오오 신민당사로 향했다. 조합원들은 "정상화가 아니면 죽음이다"는 구호가 적힌 머리를 두르고 준비해 간 플래카드를 꺼내 강당 앞 벽

에 붙이고 또 한 장은 맨 앞줄에 앉은 팀이 들고 있기로 한다. 플래카드에는 "우리를 나가라면 어디로 나가란 말이나", "배고파 못 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라고 쓰여 있다. 신민당 측에서는 철제의자를 마련해 주고 아침식사로 빵과 우유를 제공한다.

10시 경 당사에 도착한 김영삼 총재는 YH 노동자 200여 명이 4층 강당에 모여 있다는 보고를 받고 총재실에서 6명의 노조 대표를 만난다. 6명의 대표들은 이곳까지 찾아온 경위를 설명한 뒤 지원을 호소했고 김 총재는 "신민당을 찾아주어 고맙다. 여러분들이 갈 곳이 없어 마지막으로 신민당을 찾아준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위로하고 농성장으로 올라간다. 보사부 장관과 노동청장을 오게 해서 조합원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김 총재의 말을 듣고 조합원들은 용기와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된다.

조합원들은 노총가, 애국가, 가사를 바꾼 유행가를 부르며 질서 있게 농성을 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실린 신문물을 받아 들고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라디오 방송에서도 농성소식이 계속 흘러나왔다. 조합원들은 YH사건이 이렇게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로 여론화되고 있으니 사건이 곧 해결되리라는 희망에 부풀었다.



▲ 신민당사에서의 생존권을 위한 외침과(왼쪽) 폭력으로 해산되고 있는 YH 여성노동자들(1979년 8월 11일)
 ◀ 회사 내에서의 폐업철폐농성(1979년 4월)

이튿날, YH사건과 관련되었다는 혐의로 이문영 교수와 시인 고은 등 5명이 수사기관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저녁 무렵부터는 수많은 사복 괴한들이 당사 주변 골목에 진을 치기 시작한다. 그들은 모두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장발의 남자들이었다. 고위층의 지시로 오늘밤 경찰이 농성자들을 끌어낼 거라는 소문이 돌아 조합원들은 초조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조합 측은 긴급 상집위원회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노동자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조합원들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죽음으로 항쟁할 것”을 다시 확인한다.

“회사 측은 우리를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싸우지 못하고 물러선다면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우리들의 권리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는 종결대회가 끝난 뒤 조합원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위문품으로 들어온 음료수병을

깨어 들고 창가로 달려가 창틀에 매달렸다. 당사 주변에는 사복들이 진을 치고 있고 마포 일대의 차량이 통제되고 기동경찰대의 차가 몰려든다. 이를 본 조합원들은 “경찰놈들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창 밖으로 빈 병을 집어던진다. 유리창문을 거머쥐고 울부짖으며 창틀에 매달려 있는 조합원들은 김 총재의 끈질긴 설득으로 조금씩 흥분을 가라앉혔지만 8명의 조합원이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실신하여 쓰러진다.

101호 작전

8월 11일 새벽 2시. 갑자기 4층에서 자고 있던 노동자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고 현관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비명과 고함소리가 들려온다. 고가 사다리 2대, 물탱크차 2대가 동원, 조명용 소방차 2대가 대낮처럼 환히 불을 비추는 가운데 적진을 향해 돌진하듯 1천여 명의 정사복 경찰관들이 당사 안으로 밀어닥친다.

농성장인 4층 강당에는 사복 경찰들이 뛰어들어 열린 창문을 닫고 막아섰고, 방어용 철모와 곤봉을 든 기동경찰 수백 명이 들어와 노동자들을 곤봉으로 때리고 한 사람 앞에 4명씩 달려들어 사지를 번쩍 들어 계단을 통해 끌어낸다. 당황한 일부 노동자들은 주먹으로 창문을 깨고 뛰어내리려 했으나 경찰들은 이들을 폭력으로 제

지, 불과 10분 만에 모두 당사 밖으로 끌고 간다. 강제 진압의 과정에서 김경숙은 왼팔 동맥이 끊긴 채로 4층 강당에서 떨어져 당사 후편 지하실 입구 아래에 쓰러진 모습으로 발견된다.

‘101호 작전’은 정확히 23분 만에 끝난다. 8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40시간 동안 계속되었던 신민당사 농성은 이로써 막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신민당 국회의원 및 당원 30여 명, 취재 기자 12명, 노동자 수십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 상집위원 김경숙이 쓰러진 시체로 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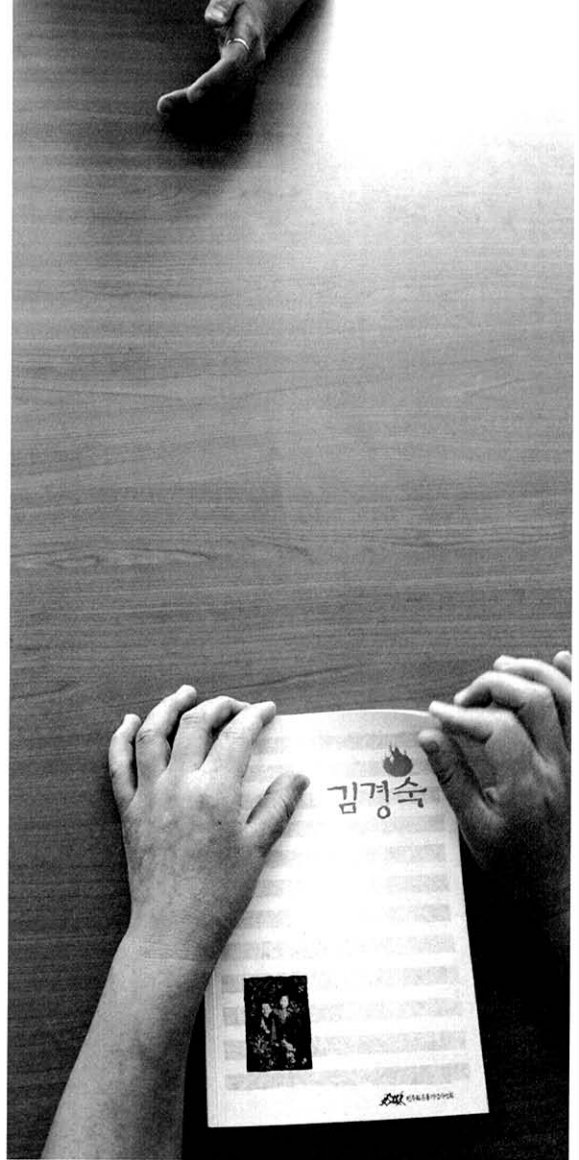
녹색병원 7층 회의실 창 밖으로 보이는 연립주택은 YH무역 당시 기숙사가 있던 자리다. 회사 측의 일방적인 폐업에 맞서 싸웠던 그 날 이후 그들은 두 번 다시 그 곳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만 YH투쟁은 노동운동, 기독교 등 각계 사회운동 세력에게 커다란 분노와 충격을 준다. 일개 사업장의 노동쟁의에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커다란 정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 신민당사 농성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진압으로 정국은 대립으로 치닫고 부마 민주항쟁과 유신독재정권의 몰락을 가져오게 된다.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으로 시작된 70년대는 노동자 김경숙의 죽음과 마침내 유신정권의 붕괴로 그 막을 내리게 된다. 신민당사 농성 과정에서 사망한 김경숙의 장례식은 3분 만에 끝나버리고, 그는 한줌의 재로 사라진다.

부마항쟁과 유신독재정권의 몰락

1989년,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선배들과 뜻있는 어른들이 모여 기금을 모으고 묘비를 건립했다. 김경숙의 뼈가루가 뿌려졌던 무등산의 흙과 국민학교(현재 초등학교) 시절의 일기장, 옷가지 등의 유품을 묻어 마석 모란공원에 가묘를 만들고 조그만 묘비를 세웠다.

그의 묘지 앞에 시인 고은이 쓴 묘비명이 하나 서있다.



저 악독한 유신팻쇼에 끝장난 바/ 한 떨기 백합꽃 김경숙 아가씨여/ 조국의 아픔 가운데 그대의 아픔 함께 있었으니/ 이른바 고도 성장의 그늘이 얼마나 거짚으로 가득찼던가/ 이에 그대와 그대 동지들 뭉쳐/ 70년대 그 모순과 죄과를 깡그리 물리치는/ 빈주먹 싸움으로 나서 매/ 거기 YH노동조합 투쟁의 역사 찬연하여라 ……

글 / 서 성 란

1967년 익산 출생.
1996년 중편소설 『할머니의 평화』로 실천문학 신인상 수상.
장편소설 『모두 다 사라지지 않는 달』과 소설집으로 『방에 관한 기억』 등이 있다.

사진 / 노 순 택

다큐멘터리 사진가(<http://nohst.simspace.com>)